

# 안산·곽진영·최미선 태극마크 명중...광주여대 '경사 났네'

### 4년만에 양궁 국가대표 3명 배출 안산, 3년 연속...곽진영, 생애 첫 최미선, 2회 연속 올림픽 금 도전

한국 여자 양궁 국가대표 산실인 광주여대가 올해 국가대표 3명을 배출했다.

광주여대는 지난 19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끝난 2020년도 국가대표 3차선발전에서 올해 입학한 안산이 배점합계 28점으로 3위, 지난해 졸업생 곽진영(전북도청)이 26점으로 4위, 최미선(순천시청)이 13점으로 8위를 차지하며 남녀 각 8명씩 뽑는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광주여대가 국가대표 3명을 배출한 것은 2016년 기보배(광주시청), 김소연(광주시청), 최미선(광주여대)에 이어 두 번째다.

안산은 3년 연속 국가대표에 이름을 올리며 모교 선배인 기보배(광주시청), 최미선(순천시청)의 뒤를 이어 올림픽에서 한국 양궁을 빛낼 스타로 떠올랐다. 안산은 지난해 7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시니어 국제대회 데뷔전인 2019 현대 양궁월드컵 4차 리커브경기에서 개인전과 혼성 팀전 2관왕을 차지했으며,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이벤트대회(프레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 광주여대를 졸업하고 전북도청에 입단한 곽진영은 2018년 제35회 회장기 전국 남녀 대학 실업양궁대회 세계타이 기록을 수립하며 주목 받았다. 곽진영은 여대부 60m에서 353점을 쏘 2009년 양궁 월드컵 4차대회에서 윤옥희가 세운 세계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곽진영은 광주여대 재학시절 김성은 광주여대 감독의 지도아래 기량이 급성장, 실업팀 입단과 함께 생애 첫 태극마크의 주인공이 됐다.

2016 리우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최미선은 2013년부터 8년 연속 태극마크를 달았다.

지난해 순천시청에 입단한 최미선은 리우에 이어 도쿄까지 2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도전을 이어나간다.

한편, 이번 선발전에서는 김우진(정주시청)과 강채영(현대모비스)이 각각 남녀 1위로 통과했다.

김우진은 배점합계 35점으로 오진혁(32점·현대제철)과 정태영(25점·두산중공업)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장채환(사상구청),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 한종혁(전북체육회), 김필중(한체대), 남유빈(배제대)이 4~8위에 오르며 국가대표가 됐다.

강채영은 배점합계 30점으로 전현영(현대백화점)과 동률을 이뤘으나 3, 4회전 세트 평균 기록(강채영 56.44·전현영 56.07)에서 앞서 여자부 1위에



지난 19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끝난 2020년도 국가대표 3차선발전에서 여자 국가대표에 선발된 광주여대 동문들이 김성은 광주여대 감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미선, 김성은 감독, 안산, 곽진영. <광주여대 제공>

올랐다. 이밖에 정다소미(현대백화점), 장민희(이천대), 윤옥희(예천군청)도 대표팀에 합류했다.

2020년도 국가대표들은 올 하반기 재개 예정인 세계양궁연맹(WA) 현대월드컵 시리즈와 아시아

컵 시리즈에 출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1년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양궁 국가 대표선수들을 선발하는 2021년 국가대표 선발전·평가전은 오는

9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총 세 차례의 선발전과 두 차례의 평가전으로 구성된 7개월 간의 대장정을 통해 남녀 각각 3명의 올림픽 대표를 가려낸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북'치고 '장구' 친 조코비치

### 본인 주최 男 테니스 아드리아 투어 2차대회 결승 진출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미니 투어 대회 성격인 아드리아 투어 2차 대회 결승에 진출했다.

조코비치는 20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자다르에서 열린 아드리아 투어 2차 대회 조별리그 경기에서 2연승을 거뒀다.

아드리아 투어는 조코비치가 기획한 미니 투어로 현재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상황에서 유럽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지난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1차 대회에서는 도미니크 팀(3위·오스트리아)이 우승했다.

이 대회는 8명이 출전해 2개 조로 나뉘어 조별 리그를 벌인 뒤 조 1위 선수끼리 결승전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코비치는 이날 페자 크르스틴(24위·세르비아)을 2-0(4-3 4-1)으로 제압했고, 홉 코트의 보르나 초리치(33위·크로아티아)도 2-0(4-1 4-3)으로 물리쳤다.

그는 남은 니노 세르다루시치(299위·크로아티아) 결과에 관계없이 조 1위를 확보했다.

반대편 조에서는 안드레이 루블료프(14위·러시아)가 2승으로 선두에 나섰지만 21일 열리는 알렉산더 츠베레프(7위·독일)와 맞대결 결과에 따라 결승에 나갈 선수가 정해진다.

이날 경기장에는 수천 명의 팬들이 입장해 경기를 관전했다. 3차 대회는 이날 말 몬테네그로에서 펼쳐지고 4차 대회는 7월 초 보스니아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 '두문불출' 우즈

### PGA 재개 2주째 무소식...트래블러스 챔피언십 출전 신청 안 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재개한 지 2주일이 지났지만,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21일(한국시간) 골프닷컴에 따르면, 우즈는 오는 26~29일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열리는 PGA 투어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 출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PGA 투어가 재개했지만 우즈는 지난 주 찰스 슈와브 챔피언십, 이번 주 진행 중인 RBC 헤리티지 이어 다음 주 트래블러스 챔피언십도 건너뛴다.

우즈는 지난 5월 밀 필립스(미국)과 대결한 이벤트 자선 대회 챔피언십 포 캐리트를 끝으로 대회에 나서지 않고 있다.

PGA 투어 대회에는 지난 2월 제네시스 인비

테이션 이후 출전하지 않았다.

PGA 투어 통산 12승을 거두고 현재 골프닷컴 분석가로 활동하는 저스틴 레너드는 우즈가 당초 투어 재개 직후 2~3개 대회 중 한 곳에 출전해 자신의 위치를 점명하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우즈는 등장하지 않았다. 7월에는 로켓 모기지 클래식(3~6일)과 신설 대회인 워크데이 캐리티 오픈(10~13일), 그리고 메모리얼 토너먼트(17~20일)가 차례로 펼쳐진다.

워크데이 캐리티 오픈과 메모리얼 토너먼트는 모두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뮤어필드 빌리지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레너드는 챔피언십 포 캐리티에서 우즈의 몸 상태가 좋아 보였으며 올 시즌 활약을 낙관적으로 기대했다. 그는 "우즈는 몸이 좋아 보였고, 현재 경기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실력도 인성도 다 갖춘 유소연

### 한국여자오픈 우승 5번째 내셔널 타이틀 획득 상금 2억5천만원 코로나 성금 기부

'내셔널 타이틀 수집가' 유소연(30)이 한국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또 하나의 여자골프 내셔널 타이틀을 획득했다.

유소연은 21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파72·6929야드)에서 열린 기자동차 제34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총상금 10억원)에서 버디 1개와 보기 1개를 묶어 이븐파 72타를 쳤다.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를 기록한 유소연은 2위 김효주(25)를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유소연은 같은 조에서 플레이한 김효주의 맹추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2라운드부터 유지한 선수를 지켜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2억5000만원이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유소연은 같은 해 9월 말 일본여자골프(JLPGA) 투어 일본여자오픈 정상에 오른 이후 약 1년 9개월 만에 다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한국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15년 8월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이후 약 5년 만이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통산 우승은 10승으로 늘었다.

유소연은 12년 만의 한국여자오픈 우승의 한도 풀었다. 유소연은 2008년 신지에(32)와 연장 3차전까지 가며 우승 경쟁을 벌이다 준우승에 머문 기억이 있다.



21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열린 기자동차 제34회 한국여자오픈 경기 4라운드 경기에서 우승한 유소연이 시상식에서 트로피에 입맞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우승으로 유소연은 내셔널 타이틀 수집가 명성도 재확인했다.

유소연은 앞서 2011년 US여자오픈, 2014년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 2018년 일본여자오픈에서도 내셔널 타이틀을 따냈다.

일본여자오픈에서 우승한 뒤 국내 내셔널 타이틀에 대한 열망이 더 커졌다고 밝혔던 유소연은 한국 여자오픈 우승으로 그 뜻을 이뤘다.

유소연은 5번 홀까지 파 세이브 행진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풀어나가는 사이, 김효주가 5번 홀(파4) 버디로 추격을 시작했다.

유소연은 곧바로 6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 달아났다. 김효주 역시 6번 홀에서 연속 버디로 유소연을 압박했다.

유소연은 9번 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내 김효주와 1타 차가 됐다. 1타 차의 팽팽한 긴장 상태는 17번 홀(파3)까지 이어졌다. 18번 홀(파4)에서도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유소연과 김효주의 두 번째 샷이 모두 벙커에 빠진 것이다.

김효주는 그린 왼쪽 홀 앞에 있는 벙커에, 유소연은 그린 왼쪽 홀 뒤에 있는 벙커에 각각 공을 빠트렸

**LOTTE CINEMA | 중랑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결백
- 2관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 언더워터
- 3관 사라진 시간, 위대한 쇼맨, 아이 캔 온리 이매진, 8인: 최후의 결사단
- 4관 사라진 시간
- 5관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 에어로너츠
- 9관 결백
- 7관 씨네캐슬 사라진 시간, 아구소녀, 열혈형사
- 8관 씨네캐슬 침입자, 열혈형사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김선아의 유월의 소나타**

GAC기획공연 - 11시 음악산책  
2020. 6. 26.(금) AM 11:00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방탄소년단**

GAC기획공연 - 포커스4  
판소리 1인극 <방탄소년단>  
2020. 7. 3.(금) ~ 4.(토)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노인과 바다**

GAC기획공연 - 4SEASON  
소리꾼 이지람 <노인과 바다>  
2020. 7. 25.(토) ~ 26.(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